

“배원에농협 지정 배 봉지로 농사 망쳤다”

“반점 생기고 출하기 검게 변해” 조합원들 피해 호소 잇따라 제작업체, 농가 탓 돌리고 배원에농협측은 ‘나몰라라’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낙과되어 있는 배가 과수원 바닥에 널려 있다.

나주배원에농협(이하 원협)에서 지정 한 수출용 배 봉지가 농가들의 한 해 농사를 망쳐 말았다. 특히 조합원들이 오래전부터 A사 제품에 대해 하자 호소해 왔지만 원협은 오히려 수출용 배 봉지로 지정해 주고 권장해 오다 올해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다.

조합원들은 “6~7년 전부터 A사 제품이 비가 오면 젖어서 찢어지고, 일부 봉지는 약품이 과다하게 묻어 배 싸기를 하면 봉부터 배에 큰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 출하기가 다가오면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나주배 농가가 올해 원협을 통해 구매한 A사의 배 봉지는 19 농가에서 ‘129호 봉지’ 64만2400매, 312농가에서 ‘129호 봉지’ 1268만9500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9호 봉지를 사용한 312 농가 중 130호 봉지 피해와 같은 증상으로 농사를 망친 농가들은 원협과 A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원협과 A사가 130호 봉지로 피해를 본 일부 농가와 쉬쉬하며 암암리에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다수의 129호 피해

이중 130호 봉지의 경우 붉은 봉지를 싸는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 작업 인부들이 두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 문제의 봉지를 사용한 배는 배 싸기를 한지 1주일이 지나자 배가 검게 변하는

농협전남본부, 나주배원에농협 분식회계 혐의 감사

나주배원에농협이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감사를 받아 결과가 주목된다.

실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등으로 나주배원에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8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나주배원에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원협이 최근 수출

나주배원에농협은 지난해 나주배 수출 실적이 3624 t (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개소... 본격 운영 돌입

나주시가 최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나주시는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소 내 공간을 활용한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 치매환자 등록, 거주시 지원,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1층 운동재활센터, 2층 검진실·상담실·진료실·교육세미나실·카페, 3층 프로그램실·가족 상담 등을 갖추고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편안하게 실 수 있는 치매예방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는 물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2억원을 들여 지상 4층, 827

m 규모로 건립됐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조선 최고 침의 허임, 문화관광콘텐츠 육성

나주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산학협력단은 허임의 나주 연구실을 뒷받침할 가계부와 사적 조사, 학술논문 검토를 진행했다.

나주시가 조선 시대 최고의 침의(鍼醫)로 꼽히는 ‘허임(許任 1570~1647)’의 생애와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에 나선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침구 명의 허임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허임 침구술의 특징과 의의, 나주에서의 활동상 재조명, 허임 전후의 나주의 의약 인물과 의약 문화 조사 등을 통해 관광·문화 콘텐츠와 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허임’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과 동시대 인물로 조선 14대 왕 선조부터 16대 인조까지 여의(御醫)를 지냈다.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는 한방치료분야 나주시 발전계획, 전남도 상위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주읍성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허임기념관 등 체험시설 건립,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연계 협력 추진, 국내 지자체와 일본·중국과의 한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허임기념사업 추진과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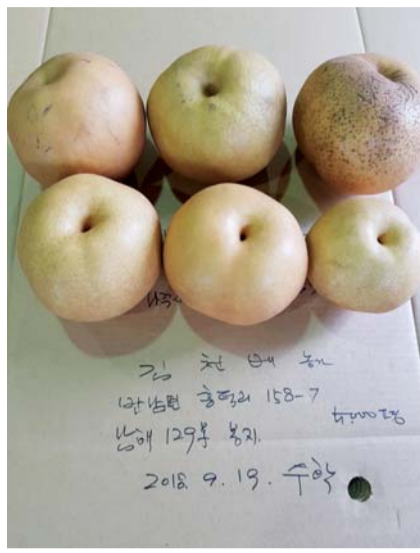
말년에 자신의 침구 기술이 담긴 ‘침구경합방’을 편찬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침구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기념관·전시관 설립, 자료 전시, 허임 거리 조성 등 보다 다양한 관광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임의 나주 연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광해군 2년(1610)에 ‘침의 허임이 전라도 나주 집에 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7개월간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동신대



앞줄은 정상 배, 뒷줄은 A사 봉지에서 출하된 검은 반점 및 얼룩진 배.

일부는 A사 129호 봉지를, 나머지 가지에는 B사 봉지를 썼는데 B사는 정상적인 배가 나왔고, A사 봉지로 쓴 가지에는 배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농가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천면 원곡리에서 배 과수원을 하는 송대웅씨는 “올해 수출용 배 생산을 위해서 A사에 129호를 사용했는데 올해 농사를 망쳤다”며 “다른 농가의 피해도 취합하고 있는데 130호 봉지 피해보다 129호 봉지 피해 농가가 훨씬 많은데도 A사와 원협은 손을 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는 봉지 피해 호소를 농가에 탓으로 돌리고,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야 할 원협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김현례 나주배원에농협 전무는 피해조사 및 보상과 관련해 “농가들이 배 봉지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현례 나주배원에농협 전무는 피해조사 및 보상과 관련해 “농가들이 배 봉지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조합원 K씨는 “그동안 배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 봉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농약을 잘못했나 자책해 왔다”며 “올해는 시험 삼아 같은 나무 가지에

조합장으로 당선된 현 조합장에 불똥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조합원 A씨는 “해마다 대미 배 수출 실적 이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선거에 표를 의식해 성공적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며 “반약 분식 혐의가 사실로 들어갈 경우 내년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나주 역사 기획보도 모음집 ‘한국사 속의 나주’ 발간

나주 역사 기획보도 모음집 ‘한국사 속의 나주’ 발간

나주시는 전라도 정명 천 년 기념사업 ‘나주 역사 기획보도’의 모음집인 ‘한국사 속의 나주’ <사진>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자는 광주교대, 서강대, 전남·전북대 등 11명의 문학박사(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1년 간 언론사에 연재된 기획보도 기사를 재정리해 편찬됐다.

년의 역사 속 인물·사건·유물·유적 등을 시대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1부 ‘고대-옹관의 시대’를 시작으로 2부 ‘고려-어항 나주’, 3부 ‘조선-정치1번지’, 4부 ‘근대-최초의 민족운동’, 5부 ‘현대-다시 서는 나주’까지 총 5부로 구성됐다. 총 312페이지 분량으로 고대 마한시대에서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등 현대 나주 사회의 모습까지 지난 천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는 “제작 과정을 통해 장시, 임란의병, 항일 운동 등 나주 땅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발견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성과...수료생 20명 배출

나주시가 추진한 나주시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이 성과를 냈다.

버스 일자리 프로젝트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8000만원을 확보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교육과정이 수료생 20명을 배출하고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 목표지정에서 전남도, 광양시 등 4개 기관과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인력 20명 양성을 목표로 1개월 과정의 버스운전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으로 운수업계 인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련된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최근 열린 수료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20명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 중 14명이 지역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취업했으며, 나머지 6명은 화순교통의 면접을 대기 중이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도와 함께 추진해온 ‘전남형 운송서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토세컨드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